

폭염·열대야 '꿀불건 피서' 현장



무등산 원효사 지구 숲 속에서 지난 28일 땀을 씻은 채 삼겹살을 구워먹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피서객.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자 더위를 피해 계곡과 공원 등지에서 취사·목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꿀불건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제공>

계곡서 삼겹살 굽고 목욕 곳곳 낮 뜨거운 애정행각

광주·전남에 6일째 폭염이 계속되면서 무등산 등 피서지에서 불법 취사·불법 영양행위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꿀불건' 피서가 극성이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거나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이고, 아무 곳이나 주차해 짜증을 부채질하는 피서객들도 늘고 있다.

불법 취사에 목욕까지=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30일 원효사 계곡에서 간이천막을 지어놓고 피서객들을 상대로 통닭 등 음식물을 불법판매한 남모(50·광주시 북구 금곡동)씨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앞서 지난 28일 불판을 가져와 원효사 계곡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은 전모(23·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와 평두메 계곡에서 갈치조리를 한 윤모(39·광주시 남구 월산동)씨 등을 잇달아 적발, 과태료 10만 원을 물렸다. 관리사무소는 수박껍질 등 음식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수박을

통째로 가져와서 껍질을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시민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암 월출산 경포대 계곡과 구례 지리산 화엄사 계곡 등에서도 지난 29일 하루 동안 8건의 불법 취사 행위가 적발됐다. 또 상당수 피서객은 이들 유명산의 계곡에서 함부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등

공공장소 고성방가 계곡 취사 10건 적발 산에서 통닭 판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올해부터 계곡 내 목욕행위와 물놀이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피서객이 여전히 옷을 벗고 계곡에 들어가고 있다"며 "단속을 하면 오히려 항의할 정도로 공원 내에서 취해야 할 에티켓을 모르는 피서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나친 애정행각=광주전변 생태공원은 인근 숲집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거나 동행로에 드러눕는 취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산구 첨단 쌍암공원, 서구 풍암 체육공원과 영주 체육관 일대 등에도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는 젊은이들과 자동차 문을 열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상국(53·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아내와 함께 운동 삼아 영주 체육관 일대를 걷는데 으스스한 곳에 차를 세워둔 채 낮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주차도 극성=광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 도로는 더위를 피해 마트를 찾는 쇼핑객들과 영주 체육관 일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겹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무등산 전망대와 원효사 입구에도 피서객들의 차량이 길게 꼬리표를 물고 늘어져 있고 비탈길에도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고객정보 도용' 농협직원 7명 입건

3,894명 몰래 '농촌사랑' 회원 가입시켜 전남경찰, 14명은 농협에 자체징계 통보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농협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고객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임의로 사용한 농협 광주지역본부 Y지점 대리 이모(38)씨 등 농협직원 7명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14명은 자체 징계토록 농협 측에 통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2일부터

22개월 동안 고객 3천894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농협 산하 '농촌사랑'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농협중앙회가 '농촌사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지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회원가입 실적에 대한 지점별 평가 등을 하자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협 전산망에 접속해 고객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출력한 뒤 '농촌사랑'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입 실적을 부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농협중앙회가 이미 고객정보 도용 사실을 알고 내부 감사를 한 뒤 지난 2~5월 무단가입이 의심되는 비활성 회원 284만 명의 정보를 모두 삭제한 사실을 관련 홈페이지 서버자료를 분석,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많이 도용되긴 했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특정단체 가입에만 사용된 점을 감안해 관련직원 7명을 불구속하고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산기록 조작해 승진 前 농협직원

'유령 자격증' 들통 퇴사·입건

승진 심사 가점을 얻기 위해 농협 인사통합 전산기록을 조작한 전(前) 농협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S지점 대리였던 이모(36)씨는 지난해 2월 승진 인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과장 승진 배경은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 자격

증 때문에 다른 심사승진 대상자들보다 가산점을 많이 받은 것이었다. 이씨의 자격증은 그러나 인사통합 전산에만 기록된 '유령' 자격증이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복무 점검을 위해 S지점을 방문한 농협지역본부 직원들의 실수를 놓

치지 않았다. 이들이 통합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뒤 접속을 끊지 않고 돌아간 틈을 이용, 자신의 전산인사자료의 자격면허란에 '유통관리사 2급 자격 취득'이라고 입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의 승진을 수상하던 여건 직원의 탐원으로 자체 감사를 받았고, 농협을 그만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통합전산시스템과 S지점 단말기를 확인, 이씨를 사(私)전사기록위탁 등 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정훈 나주시장 불구속 기소

보조금 관리법 위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30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자격이 없는 법인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신정훈 나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화해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 자본 부담 능력과 사업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N화해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17일과 지난해 2월



062)367-9000

28일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신 시장은 지난 2004~2005년 나주시의회와 시 기획감사실 등에서 사업자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과 보조금 회수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업자 선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상권 이행협약서를 체결, 이를 영산강환경영역청에 제출하고 2차 보조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 지난 달 8일 나주시청 자치행정국장 유모(58)씨와 친형격자물과장 함모(55)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50)씨 등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익사·조난사고 잇따라

30일 오후 4시30분께 보성군 회천면 앞바다에서 최모(38·보성군 득량면)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자율방범대원인 최씨는 휴가를 맞아 동료들과 피서를 왔다가 썰물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0시20분께는 목포시 향동 관공선 부두에서 술을 마신 뒤 인정을 벌이다 "함께 빠져 죽자"고 바다에 뛰어든 류모(34)·김모(30)씨 등 2명이 표류 중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김모(23) 상경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지난 29일 밤 9시10분께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해상 앞 무인도인 '거북선'으로 썰물 때 낚시를 하러 들어갔던 이모(40·순천시 연항동)씨 일가족 5명이 바닷물이 차면서 조난됐다. 휴대전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수회와 회원 10여 명과 선박을 동원,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원침 (7275)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mputer Center) services, including DS (Data Security) and KCC (Korea Computer Center) products.

Advertisement for '상나팔' (Sangnapal) featuring a pig logo and text about '성매매 알선' (sex trafficking) and '보도방' (news) related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모다쉬갤러리' (Modashe Gallery) featuring '夏 특가판매' (Summer Special Sale) with various furniture and interior design items.

Large advertisement for 'S the 1 요리학원' (S the 1 Culinary Academy) featuring '대특강 개강' (Grand Special Lecture) and various cooking courses.